

한국어의 소단위어: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

채 희 락
한국의국어대학교
hrchae@hufs.ac.kr

I 입문

- 한국어 소단위어의 형태/통사적 지위: 파생접미사, 굴절접미사, 접어
-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는 주로 접어로 분석이 되어야 함.
- 동사류 소단위어는 주로 굴절어미로 분석이 되어야 하지만
어말어미 중 일부는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- 동사류 소단위어 중 접어는 주로 ('-고 하') 생략과 융합에 의해
형성되었음.

II. 한국어와 접어

(1) 극단적인 어휘주의: Cho & Sells (1995) 등

가. 음운론적으로 홀로 설 수 없으면 무조건 단어의 일부로 봄:

- i) 모든 명사류, 범범주 소단위어들 (동사류 소단위어는 물론).
- ii) (공부)하다; (건강)하다, (책)이다, (NP-)같다, (NP-)답다₁
(cf. 아름-답다₂).

나. 단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?: 불완전 명사, 지시 관형사 등도
단어 내부 요소?

내가 좋아 하는 것 인 사람, He's a boy, ...:
이것들도 홀로 설 수 없음.

다. '책상이다'와 같은 "명사"가 어떻게 용언 역할을 하나?

'이번 주 캠페인 주제는 대자연을 만끽함이다.' 용언에 '이다'가
붙었나?

라. "어미들"간의 순서/분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

i) '호랑이에게 [잡-히-시-었-겠-음-만-으로-는] 대규모 병력을
동원할 수 없다.'

- ‘음’ 다음에 어떻게 명사류 소단위어가 붙을 수 있나?
- ii) ‘이번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[너-만-이-口-을] 알아야 한다.’
 - ‘-이’와 ‘-口’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?
 - “명사”에 어떻게 명사화 접미사가 붙을 수 있나?

(2) 단어/어절 내 각 구성요소의 문법적 지위?

- 가. 선생-님-들-께-만-은
- 나. 잡-히-시-었-겠-다-고-요

(3) 단어의 형태론적 구성:

접어 - [굴절접두사-[파생접두사-어근-파생접미사]-굴절접미사] - 접어

- 파생접사: 단어 내부의 문제에만 관여.
- 굴절접사 및 그 바깥 요소: 통사적 역할이 있음.

(4) 접어/의사어 (clitics) (Zwicky & Pullum 1983, Zwicky 1985, Nevis 1986)

- 가. Grammatical units with some properties of inflectional morphology and some of independent words.
- 나. (Inflections) - Phrasal Affixes - Bound Words - Quasi-clitics - (Words)
- cf. Bound Words: typical clitics

(5) 구접사 (phrasal affixes)

- John’s book, [the king of England]’s book
- [the man over there]’s book

III.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

(6) 격조사, 후치사, 한정사 등

(7) 후치사(부사격 조사) 분석:

- 가. 파생접사?
 - i) [내가 놀던] 곳-에서 그것을 찾았다.
 - ii) 파생접사라면 “곳에서”가 부사가 되며 앞의 관계절이 이 부사를 수식한다고 해야 함.

나. 굴절접사?

i) 굴절 패러다임으로 보기에는 후치사의 의미가 너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.

ii) 굴절 어미들간의 순서 제약 규정을 어떻게 설명?

다. 접어 분석: 통사적으로는 독립 단어이지만 음운론적으로는 선행 요소에 의존.

i) [명사-후치사] 단위는 명사구가 아니라 후치사구의 분포를 보임.

ii) 후치사들의 의미 차이는 문법 자질(features)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님:

칠수는 어제 [집-에] 있었다, 칠수는 어제 [운동장-에서] 놀았다.

- [] 부분은 모두 [Place]를 나타내지만 자유 변이형이 아님.

(8) Chae & No (1998): assumptions for a new analysis

(cf. Cho & Sells 1995, Yoon 1995)

가. nominal roots are free forms rather than bound forms.

나. only (discourse) delimiters are cross-categorial elements.

다. (discourse) delimiters are cliticized modifiers (CMs)

- only CMs are cross-categorial elements.

라. N/A/G case markers and the topic marker *-un/nun* are phrasal affixes.

(9) No morphotactic templates are necessary for Korean nominals:

[Stem- ... -Infl Suffix] - (i) - Postposition - (ii) - Phrasal Affi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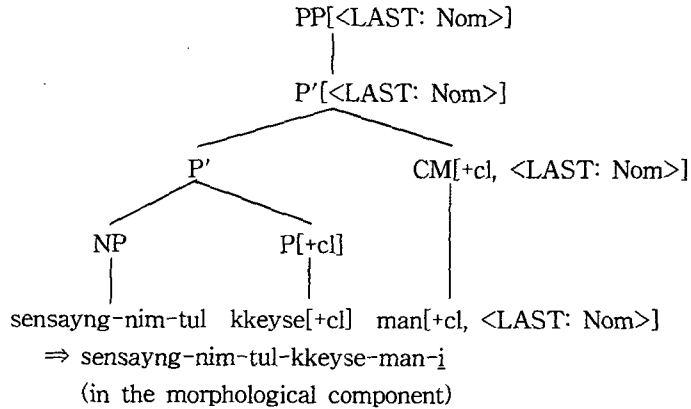
가. the elements in [Stem-Der Suffix-Infl Suffix] are word-internal.

나. phrasal affixes can only occur in the position specified because it has the function of closing the phrases concerned (cf. the FOOT/EDGE Feature LAST).

다. the distribution of postpositions and CMs are determined by syntactic and/or other factors -- A postposition comes after a noun (in Korean), Each modifier (CM) has its own restrictions on its combination with the modified.

라. CMs can modify not only nominals but also (free-form) verbals by their own nature of being modifiers.

(10) An example of Chae & No's (1998) analysis:



cf. *-kkeyse* is a clitic postposition, *-man* is not a head but a modifier.

IV. 동사류 소단위어들

(11) Chae & No (1998):

- 가. [cap-hi] -si -ess -keyss -ta ko
 Psss Hon Past Modality Decl (IQuot)
 나. [] 밖의 모든 요소를 굴절접사로 보는 입장.

(12) 외곽의 요소 중 일부는 독립 요소, 즉 접어일 가능성이 큼:

- 가. 인용격 조사 '-고'의 문제: 독립된 형태소인지, 독립 단어인지 등의 문제.
 나. 명사화소 '-음/기'의 문제:
 Chung, et al. (2001): 굴절어미로 봄.
 Chae (2003, to appear): 접어로 봄.

(13) 인용격 조사 '-고'를 독립 형태소로 볼 수 없는 이유

- (Chae & No 1998: 88-89):
 가. 소수의 어미 다음에만 나타남:
 -ㄴ다고/-는다고/-다고/-라고, -느냐고/-냐고, -더라고, -(으)라고
 (*-네고, *-는군고, *-는데고, *(으)르까고, ...)
 나. 대응되는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가 있음: -라고, -(으)라고
 학생이라고 하네, *학생이라 (cf. 학생이다)

삶으라고 하네, *삶으라 (cf. 삶어라)

- (14) (13)의 견해에서 가장 큰 문제는 ‘-고’와 선행 요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임. (cf. 남기심 1973/1986: 116)
가. 철수가 간다고 한다. 나. 철수가 간다 한다.
다. 철수가 간단다.

- (15) ‘책을 읽음/읽기’에서 명사화소 ‘-음/기’를 접어로 보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선행 요소인 ‘읽-’이 음운론적으로 독립된 단위가 아니라 접어이다. 일반적으로 접어는 독립 단위에 붙기 때문이다 (but cf. 홀름-하다). 그러나 ‘-음/기’의 선행 요소도 독립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(Chae 2003, to appear):

가. 밥을 먹-는/였/겠-다-기-에 (cf. -다길래)
밥을 먹-∅/였/겠-(느)냐-기-에
밥을 먹-으라-기-에
밥을 먹-자-기-에 (cf. 이지양 1993/1996: 79)
나. 그 문제는 철수가 혼자 풀-었-다-기-가-에 어렵다.
밥을 먹-었-다-기-보다-는 약을 삼켰다.
아무리 인삼을 먹-었-다-기-로, ...

- (16) 관형사화소 ‘-는’ (cf. 부사화소 ‘-이’?: Sohn 1999: 396)
가. 쏜은 도둑이 도망 간다-는 것을 알았다.
나. 그런 영화를 본다-ㄴ/본다-는 말이나?
나. 선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-는 나무꾼을 만났다.

- (17) 명사화소 ‘-기’나 관형사화소 ‘-는’ 앞에 ‘-고 하’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나?
(cf. 안명철 1992, 이필영 1992, 이지양 1993/1996: 192)

가. 밥을 먹-는/였/겠-다{-고 하}-기-에
??아무리 인삼을 먹-었-다{-고 하}-기-로, ...
나. ?*쏜은 도둑이 도망 간다{-고 하}-는 것을 알았다.
*그런 영화를 본다{-고 하}-ㄴ/본다{-고 하}-는 말이나?
선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{-고 하}-는 나무꾼을 만났다.

- (18) ‘-고 하’ 생략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 (“비환원적 융합”: 안명철 1992)
 가. 나는 지금 슬프단다 (cf. *나는 지금 슬프다고 한다).
 나. 애가 우리 첫째랍니다 (cf. *애가 우리 첫째라고 합니다).
 (이익섭/채완 1999: 122)

- (19) 종결 어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기타 동사류 소단위어들:
 가. 밥을 다 먹었다(고 하)-는데, 왜 아직 안 나와?
 네가 이걸 다 끝냈다(고 하)-니, 놀라운 일이다.
 집에 갔다(고 하)-더니(만), 저기 있구나.
 집에 왔다(고 하)-면 소리를 질렀다.
 집에 간다(고 하)-면 데려다 주겠다.
 집에 간다(고 하)-면서 나갔다.
 예산이 부족하다(고 하)-지만, 효과적인 활용이 더 중요하다.

cf. *먹었다-므로, 먹었다(고 하)므로
 *먹었다-(어)서, 먹었다(고 해)서

- 나. 봄이 왔다(*고 하)-마는 꽃이 안 핀다. (남기심/고영근 1993: 105)
 그이가 집에 갔다(*고 하)-거나 하는 소식 들었니?
 그이가 돌아 왔다(*고 하)-든지 하는 소식 들었니?

cf. 봄이 왔네-그러, 봄이 왔구면-그래 (남기심/고영근 1993: 105)

- (20) (19나)의 표현들은 ‘-고 하’를 허용하지 않으며, (19가)의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의미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. 예를 들어, ‘네가 이걸 다 끝냈다고 하니’는 상대방이 일을 끝냈다는 말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‘네가 이걸 다 끝냈더니’는 상대방의 말과는 관계가 없다.

- 가. *네가 지금 그만 둔다면, 누가 그 말을 믿겠니?
 cf. 네가 지금 그만 둔다면, 누가 그걸 믿겠니?
 나. 네가 지금 그만 둔다고 하면, 누가 그 말을 믿겠니?

- (21) 인용격 조사 ‘-고’: 통사적 독립 단어로 분석 (cf. (13))
 - 형태적으로는 접어이며 기능적으로는 “보문자(complementizer)”임.
 가. 독립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어미와 분리될 수 있음.

나. 분포적으로 어말 어미 다음에 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음.

다. ‘-고’는 다음의 어미를 취함:

-ㄴ다/는다/다, -라 (cf. 책이다), -(느)냐, -(으)라, -자

“Neutral-level enders are used only in an embedded clause of a quotative construction ...” (Sohn 1999: 271)

(22) 명사화 접미사 ‘-음/기’: 통사적 독립 단어(접어)로 분석,
품사는 명사임 (cf. (15))

가. 동사류 소단위어 다음에 나오고 명사류 소단위어 앞에 나오는
것을 쉽게 설명.

나. 동명사구가 명사적 분포를 보이는 것을 쉽게 설명.

다. ‘-기’는 다음의 어미만 취함:

-ㄴ다/는다/다/∅, -라 (cf. 책이다), -(느)냐, -(으)라, -자

(“neutral-level enders”)

cf. -∅: null-form mood marker (Chae, to appear)

라. ‘-음’은 -∅만 취함 (역사적으로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:
Park & Kim 2003)

(23) Cho & Lim (2003)

가. 뛰-ㄴ-대, 뛰-었-대, 뛰-겠-대; 뛰-내, 뛰-었-내, 뛰-겠-내;
뛰-래; 뛰-재

나. 뛰-래-쓰-어

다. 뛸-대-쓰-대, *뛸-대-(쓰)-래, *뛸-대-(쓰)-내, 뛰-래-쓰-대

라. 뛰-래-쓰-대-쓰-대, *뛰-내-쓰-대-래

(24) 남기심 (1973/1986: 116)

가. 철수는 간다고 해요. 나. 철수가 간대요.

- (나)는 (가)에서 보문자 ‘-고’와 ‘해요’의 /ㅎ/이 탈락한 것으로 봄.

- 그리고 필수 규칙 [ㅏ+ㅓ→ㅓ]을 가정함.

(25) 분석 (24)의 문제점:

가. ‘-고 하’의 생략은 일반적인 현상임 (cf. (19))

- 단다, -다네, -란다, -런다 (-려고 한다), -다더라 (-다고 하더라)

나. 필수 규칙 [ㅏ+ㅓ→ㅓ]의 문제점 (cf. ‘자애심’)

(26) [하+j]를 가정하면 ‘-고 하’ 생략과 일반 음운 규칙으로 (23)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.

cf. 하 j -었 -다: 하였다, 했다 (‘했다’에서 /애/ 다음의 /어/는 모음 충돌로 생략되는 것으로 가정,

cf. 끝내/*끝내어, 없애/*없애어, 끝내었다/끝냈다)

가. 된다고 해: 뛰-ㄴ다(-고 하) j -어 → 뛰-ㄴ다 j -어 → 뛰대

뛰냐고 해: 뛰-냐(-고 하) j -어 → 뛰-냐 j -어 → 뛰내

뛰라고 해: 뛰-라(-고 하) j -어 → 뛰-라 j -어 → 뛰래

뛰자고 해: 뛰-자(-고 하) j -어 → 뛰-자 j -어 → 뛰재

나. 뛰라고 했어: 뛰-라(-고 하) j -었-어 → 뛰-라 j -었어 → 뛰랬어

다. 된다고 했다고 해: 뛰-다(-고 하) j -었-다(-고 하) j -어 → 뛰댓대

*뛰다(고 하)j라(고 하)j어: *뛰대래,

*뛰다(고 하)j었으라(고 하)j어: *뛰댓래

*뛰다(고 하)j냐(고 하)j어: *뛰대내,

뛰다(고 하)j었냐(고 하)j어: 뛰댓내

뛰라(고 하)j었다(고 하)j어: 뛰랬대

cf. /j/의 앞뒤가 모두 모음이라야 축약 규칙이 적용됨.

라. 뛰라(고 하)j었다(고 하)j었다(고 하)j어: 뛰랬댓대

*뛰냐(고 하)j었다(고 하)j)라(고 하)j어: *뛰냈대래

(cf. 뛰냐고 했다고 해라고 해)

(27) 명사화소 ‘-기’, 관형사화소 ‘-는’ 등의 앞에서와는 달리 (23/26)에서는 ‘-고 하’의 탈락을 가정함으로써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. 즉, 여기서의 해당 요소들은 “환원적 융합”(안명철 1992)의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그 이유는 아마 이들이 모두 “보고(reporting)”의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임. 그렇다면 Cho & Lim (2003)에서처럼 자의적이고 복잡한 메카니즘을 설정하지 않아도 관련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.

V. 결론

<참고 문헌>

- 남기심 (1973/1986)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, 탑출판사.
- 남기심, 고영근 (1993) 표준 국어문법론 (개정판), 탑출판사.
- 안명철 (1992) 현대 국어의 보문 연구, 박사 학위 논문, 서울대학교.
- 이익섭, 채완 (1999) 국어 문법론 강의, 학연사.
- 이지양 (1993/1986) 국어의 융합 현상, 태학사.
- 이필영 (1992)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대한 연구, 박사 학위 논문, 서울대학교.
- 채희락 (1996) “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‘소단위어들,’” 언어와 언어학 22, 한국외대 언어연구소.
- Chae, Hee-Rahk (1995) “Clitic Analyses of Korean ‘Little Words,’” *Language, Information and Computation* 10, 97-101, City University of Hong Kong.
- Chae, Hee-Rahk (2003) “An Analysis of Gerund Phrases: NPs with N Heads,” *Language and Linguistics* 31, Hankuk Univ. of Foreign Studies.
- Chae, Hee-Rahk (to appear) “Gerund Phrases as NPs with N Heads: No Empty or Mixed Categories,” *Japanese/Korean Linguistics* 13, CSLI Publications.
- Chae, Hee-Rahk and Yongkyoon No (1998) “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: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,” *Korean Linguistics* 9, 65-109,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.
- Cho, Sae-Youn and Kyung-Sup Lim (2003) “A Lexical Analysis of ‘Predicate + Contraction Morphemes’ in Korean,” *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* X.
- Cho, Young-Mee Yu and Peter Sells (1995) “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,” *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* 4.
- Chung, Chan, Jong-Bok Kim, Byung-Soo Park, and Peter Sells (2001) “Mixed Categories and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ies in English and Korean Gerundive Phrases,” *Language Research* 37.4.
- Nevis, Joel A (1985) *Finnish Particle Clitics and General Clitic Theory*,

- Ph.D. dissertation, Ohio State Univ.
- Park, Chongwon and Ilhwan Kim (2003) "The Distribution of Korean Nominalizers: A Quantitative Approach," *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* X.
- Sohn, Ho-Min (1999) *The Korean Language*, Cambridge Univ. Press.
- Yoon, James Hye Suk (1995) "Nominal, Verbal, and Cross-categorial Affixation in Korean," *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* 4.
- Zwicky, Arnold M. (1985) "Clitics and Particles," *Language* 61.2.
- Zwicky, Arnold M. & Geoffrey K. Pullum (1983) "Cliticization vs. Inflection: English *n't*," *Language* 59.3.